

原油價格의 急落으로 대책에 부심하는 美國 석유업계

인원 감소 실업을 상승등에도 파급

최 근 油價의 급격한 하락으로 美國의 각석유회사는 대책수립에 필사적이다. 투자계획의 축소조정과 인력감축 정책이 잇달아 시도되고 텍사코는 채산이 맞지않은 유정을 폐쇄했다. 그중에는 아라메다·헤스와 같이 배당을 유보하는 회사와 diamond·jam·rock과 같이 유력사업의 매각을 단행하는 예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美國전체 실업율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원유가격의 급락은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한편, 負의 효과도 확대시키고 있다.

엑슨, 모빌, 텍사코등 巨大석유5社는 美國産원유 표준유종인 웨스트 텍사코 인터미디에이트(WTI) 原油의 인수가격을 1배럴당 1~2달러 인하하여, 14~18.75달러로 설정했다. 4월 출하의 선물가격은 13달러 전후까지 내려가고 있고, 작년 11월에 31.7달러였던 것으로 본다면, 틀림없이 폭락상태인 것이다.

不採算유정을 폐쇄

이 때문에 각석유회사는 가능한 한 수익악화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텍사코는 메이저(국제석유자본)로서 처음으로 不採算 유정의 폐쇄를 단행했다. 캘리포니아주 캐롱·비라의 약 1500개의 중소유정을 폐쇄하는 한편, J. 메킨리회장은 『올해 예정하고 있던 28억달러의 투자를 10% 감소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금년에 들어와 약 3000의 개인소유의 중소유정이 폐쇄에 직면하고 있다.

유노칼도 금년의 투자계획을 20% 축소하여 12억달러로 하향수정하였다. 당초 계획에 원유시황을 1배럴에 2~4.5달러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투자액 18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 2/3로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아틀란틱·리치필드도 금년투자액을 당초계획의 3천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감축하여 알래스카 노드·스트로프에서의 굴착유정의 수를 거의

반감시켰다.

옥시덴탈·피트롤리엄이 당초계획에 비해 25% 감소, 셰브론, 필립스 피트롤리엄은 둘다 30% 감소로 하향수정하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엑슨은 당초계획에 비해 26% 투자삭감을 결정한데 덧붙여 대폭적인 기구축소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삭감에 그치지 않고 노무대책에까지 손을 대는 기업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셰브론은 4월 15일부터 전종업원의 15%에 달하는 9150명의 일시해고와 더불어, 종업원의 36%를 차지하는 관리직과 비조합원의 임금인상을 동결할 생각이다. 테네코도 투자계획을 25% 삭감하는 한편, 석유·가스개발·생산현장 종업원의 18%, 약 47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아라메다·헤스는 55세 이상의 희망퇴직자 모집을 시작했고, 게다가, 금년 제1/4분기(1월~3월)의 배당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화학회사로 알려진 다이아몬드·jam·rock의 대담한 「외과수술」이다. 석유·가스사업에 특

화하는 새로운 전략에 의해 이익을 올리고 있는 화학, 석탄의 양자업부문을 매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양부문의 작년 매상고는 합계 약 10억 달러, 전종업은 5900명이다. 이 회사는 이외에도 종업원을 600명 감축시킬 예정이다.

배당의 보류외에 배당을 줄이기도

原油價格의 폭락은 배당수익의 악화에 직결될뿐 아니라 채고와 자산의 평가손실을 초래하는 기업체력을 소모시킨다. 이 때문에 월가의 석유업계 분석가의 사이에서는 『현재 석

유시황에서는 투자를 20~40% 감소해도 유노칼, 옥시덴탈, 텍사코등은 배당이 어려울 것이다.』 『모빌, 스텐다드·오일, 셰브론, 아틀란틱, 아모코등도 배당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고 하는 비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각 석유회사의 투자감소, 인원감축 움직임은 2월 전美國의 실업율을 6.7%에서 7.3%로 급증시키는 요인중 하나로 되었다. 실제, 노동성은 석유생산州인 캘리포니아, 텍사스와 일리노이드州를 실업율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다.

4%성장에 적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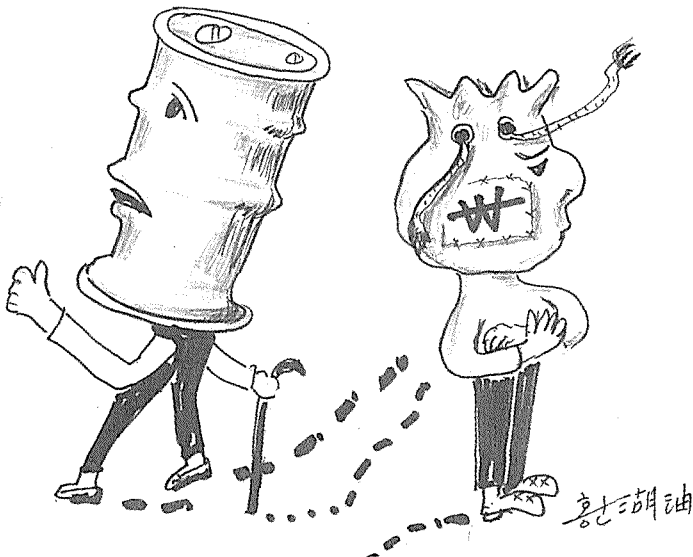
에너지문제 전문가 사이에서는『원

유가격의 폭락은 석유업계를 피폐시킬 뿐만 아니라 美國의 에너지소비 확대와 원유輸入 증가로 이어져 미래 에너지위기의 가능성을 팽창시킨다.』 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유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증가효과가 나타내는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금융경제학자 사이에서는 당장은 마이너스 효과가 크고, 정부가 예측한 금년 4% 성장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견해조차 나오고 있다. □

〈日本經濟新聞 86. 3/21〉

□漫評□

油價와 物價



오를땐 즉시 反映.....「油價」

내릴땐 난 몰라!.....「物價」